

# CIRレポート2月号（韓国）

## 「韓国のお正月、ソルラルの風景」

国際交流員 ペ ユンジュ 裴 允珠（韓国）

山口県の韓国交流員ペ・ユンジュです。今日は日本と似ているようで似ていない韓国のお正月の過ごし方を皆さんに紹介します。実は韓国では陰暦の1月1日を「ソルラル(설날)」と呼び、大きな行事として祝います。そのため、12月末から1月初めまで年末年始休暇としている日本とは違って、韓国は西暦の1月1日だけ休みになります。その代わりに、韓国では旧正月(ソルラル)になったら3連休になります。旧暦の1月1日なので毎年変わります。今年は1月28日がソルラルの日で、1月27日～1月30日まで連休でした（本来は3連休ですが、今年は30日が振替休日のため4連休になりました）。それでは、旧正月の「ソルラル」のときの韓国人の過ごし方について一緒に見てみましょう。

### ■ 民族大移動

韓国の「ソルラル」のときは日本のお正月のように帰省ラッシュになります。田舎の実家に親戚が集まって一緒にソルラルを過ごすため、大勢の人が同時期に動くので、高速バスや鉄道の切符がすぐ売り切れになります。高速道路も大混雑し、テレビやラジオ、ネットなどでどこの区間がどのくらい混んでいるのかを中継します。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신정 설날	2	3	4	5 소한	6	7
8	9	10	11	12 음 12.15	13	14
15	16	17	18	19	20 대한	21
22	23	24	25	26	27	28 음 1.1 설날 소르ラル
29	30 1월 휴일 振替休日	31	1	2	3	4



↑韓国の2017年1月カレンダー

↑帰省ラッシュの姿

### ■ 新年のあいさつ

ソルラルの朝は、韓国の伝統衣装である韓服(ハンボク)を着て親戚や近所の人同士で新年の挨拶をします。年配の人や目上の人に「歳拝(セベ)」と呼ばれるおじぎをし、徳談(トットァン、祈りやお祝いの言葉)を交わします。挨拶が終わると子どもたちはお年玉をもらいます。



左：歳拝(セベ)をする姿

右：徳談(トットァン)とお年玉をもらう姿

## ■ 伝統行事

ソルラルの午前中に、先祖の霊を迎え入れるための祭礼である「茶礼(チャレ)」も行います。各家庭の祭壇に様々な食べ物を供え、拝礼などの儀式を行います。供える料理から進行まで、各家庭や地方、また時代によって少しずつ異なります。そして、もともと「茶礼(チャレ)」は成人男子によってとり行われましたが、最近は女性や子供も参加することが多いです。終了後には墓参りにいきます。



↑茶礼(チャレ)を行っている姿



↑墓参り

## ■ 伝統料理

ソルラルの時、茶礼(チャレ)のため用意した食べ物を家族みんなで食べます。そして、日本のお正月に餅を入れた汁物である「お雑煮」を食べるように、韓国のソルラルでも「トックク(떡국)」を必ず食べます。「トックク(떡국)」は長寿の祈って細長い餅である「ガレットツ(가래떡)」を、豊かな生活を祈ってお金の模様のように丸く薄切りにして、だし汁に入れた料理です。地域、家庭によって作り方や材料は違いますが、牛肉や海産物などからとっただし汁が使われ、野菜、卵、魚介類などを加えて食べます。韓国では「トッククを一杯食べてこそ一歳歳をと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ガレットツ(가래떡)



↑トックク(떡국)

## ■ 伝統遊び

ソルラルは親戚や家族がみんなで伝統遊びもします。すごろくに似ているユンノリ、チエギチャギ、ノルティギ、ペンイチギ (こま回し)、ヨンナルリギ (凧揚げ)、トゥホ(投壺)など、様々な伝統遊びをします。家だけではなく、ソルラルの連休の時には、伝統遊びが体験できるイベントもたくさん開かれています。



↑ユンノリ(윷놀이)



↑トゥホ(투호)

以上、韓国のお正月「ソルラル」の紹介でした。ドラマなどで「ソルラル」の場面が出たら、もっと楽しめると思います！

<写真出所及び内容参考>

- 1. 韓国観光公社ホームページ及び facebook

<http://japanese.visitkorea.or.kr/jpn/index.kto>

<https://www.facebook.com/visitkorea.jp/>

- 2. konest

[https://www.konest.com/contents/korean\\_life\\_detail.html?id=436](https://www.konest.com/contents/korean_life_detail.html?id=436)

< 한국의 설날 >

야마구치 현 한국 교류원 배운주입니다. 오늘은 일본과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한국의 설날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음력 1 월 1 일을 '설날'이라고 부르며, 전통행사 등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12 월 말부터 1 월 초까지 연말연시 휴가로 쉬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양력 1 월 1 일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는 음력 1 월 1 일을 중심으로 3 일 동안 설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음력 1 월 1 일이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올해는 1 월 28 일이 설날이었고 1 월 27 일~30 일까지 연휴였습니다(원래 설 연휴는 3 일간이지만, 올해는 30 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올 설 연휴는 총 4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설날 때 한국인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족 대이동

한국의 설날에는 일본의 양력설처럼 귀성길이 매우 혼잡하게 됩니다. 고향에 친척들이 모여 다 함께 설을 보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동하게 되므로, 고속버스와 전철 표는 금방 매진이 됩니다. 고속도로도 교통 체증이 심해지며,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어느 구간이 가장 혼잡한지에 대해 생중계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3	4	5 소한	6	7
8	9	10	11	12 음 12.12	13	14
15	16	17	18	19	20 대한	21
22	23	24	25	26	27	28 음 1.1 설날 ソルラル
29	30 대체 휴일 대체휴일	31	1	2	3	4

↑2017 년 1 월 한국 달력



↑혼잡한 귀성길

■ **신년인사**

설날 아침에는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친척 혹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신년 인사를 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손윗사람들에게 세배하고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세배가 끝나면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습니다.



↑세배



↑덕담과 세뱃돈을 받는 장면

■ **전통행사**

설날 오전에는 선조의 혼을 맞이하기 위한 차례를 지냅니다. 각 가정의 제사상에 제사음식을 준비하고 절 등을 합니다. 요리준비부터 진행까지 그 형태는 각 가정이나 지방,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는 성인 남성들만 지냈지만, 요즘에는 여성이나 아이들도 참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례가 끝나면 성묘를 하러 갑니다.



↑차례 지내는 모습



↑성묘

■ **전통요리**

설날에는 차례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다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일본 설날에 떡이 들어간 '오조니(お雑煮)'를 먹듯이, 한국에서도 설날에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에는 가래떡을 동그랗게 썰어 넣는데, 이는 얇고 긴 가래떡은 장수를 의미하고 동그랗게 썬 가래떡은 엽전을 의미하여 장수와 재물복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역, 가정에 따라 떡국을 만드는 방법과 재료가 다르지만, 보통 소고기나 해산물 등으로 국물맛을 내고 채소, 달걀, 어패류 등을 넣어 먹습니다. 한국에는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 비로소 1살을 더 먹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래떡



↑떡국

## ■ 전통놀이

설날에는 친척이나 가족이 모여 전통놀이를 합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투호 등 다양한 전통놀이가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설 연휴에는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많이 열립니다.



↑윷놀이



↑투호

이상, 한국의 설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드라마 등에서 설날에 관한 장면이 나온다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및 내용 참고>

1.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facebook

<http://japanese.visitkorea.or.kr/jpn/index.kto>

<https://www.facebook.com/visitkorea.jp/>

2. konest

[https://www.konest.com/contents/korean\\_life\\_detail.html?id=436](https://www.konest.com/contents/korean_life_detail.html?id=436)